

신학과 믿음의 싸움

김진수 | 신학정론 편집인 (2021,39 권 2 호)

믿음은 싸움을 요구한다. 믿음은 마냥 평안한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믿음의 주” (히 12 : 2) 이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마 10 : 34) 고 말씀하셨다. 이는 싸움이 교회의 삶을 구성하는 본질적 요소임을 잘 가르쳐 준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한 서신에서 완전무장을 하고 적들과 싸우는 군인의 모습에 비추어 신자의 삶을 설명한다 (엡 6:1-17 참조).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 (딤후 6:12) 을 싸우라고 권한다. 요한계시록에서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와 “용과 그의 사자들” 사이에 벌어지는 것으로 묘사된 종말론적 전쟁은 아마도 교회가 매일의 삶에서 직면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연장선에서 이해되어야 옳을 것이다 (계 12 장 참조).

교회가 피해갈 수 없는 이 싸움은 사실상 구약 이스라엘이 수행해야 했던 전쟁과 본질상 하나로 연결된다. 차이는 다만 외적인 형식이나 방식에 있을 따름이다. 내용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과 그들을 적대시하는 세력과의 충돌과 싸움이다. 구약 이스라엘이 수행했던 전쟁은 이른바 “여호와와의 전쟁”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전쟁이며,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며, 여호와께서 직접 용사로 참여하시는 전쟁이다. 그러므로 이 전쟁은 비록 치열한 싸움이 수반되긴 하지만 필연적으로 승리가 보장된 전쟁이다. 애굽과 이스라엘의 싸움, 나아가 가나안 족속들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생각해 보라. 애굽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한낱 노예에 불과했으며 가나안 족속과의 관계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보기에 도메뚜기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가? 애굽의 바로도 가나안의 왕들도 모두 이스라엘 앞에 무릎을 꿇었다. 이는 이스라엘의 전투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여호와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구약 이스라엘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믿음이었다. 이 믿음을 제외하면 이스라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가장 적은” (신 77) 민족이었다. 이들이 스스로 적을 물리치고 나라를 이루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도록 되어있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다.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회를 노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였다. 당시 이스라엘은 도무지 적군과 싸울 형편이 아니었다. 마실 물이 없어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출 17 : 8 ; 신 25 : 18 참조) .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한다. 승리의 원인은 다름 아닌 모세의 손에 들린 하나님의 지팡이였다.

모세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아론과 훌과 함께 언덕 위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갔다.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올라가자 여호수아의 군대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자 아말렉이 이겼다. 승리의 원인을 깨달은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양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어렵잖게 아말렉을 물리칠 수 있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에게 전쟁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준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손을 들어올리는 행위는 구약 선지자들이 행한 상징행위에 비교될 수 있다. 그것은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선지자적 상징행위 (prophetic symbolic action) 였다.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놀라운가? 하늘과 땅과 바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홍해를 가르신 전능자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대로 하나님께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같 [다] ” (사 40 : 15) ,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단 2 : 21) 분이다.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을 모신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어떤 적을 만나든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저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적들과 싸우시고 승리를 주신다.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세상의 어떤 군대도 갖지 못하였고 가질 수도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졌다. 그것은 믿음의 무기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무기를 잘 활용하는 일이다. 제아무리 좋은 무기라도 활용하지 않으면 무의미하다. 이스라엘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해야 했다. 그것은 관조적이거나 수동적인 태도와는 거리가 멀다. 살아있는 믿음은 행동하도록 이끈다. 모세가 언덕에서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올린 것은 분명 믿음의 행위였다.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 올린 것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굳은 신뢰를 반영한다. 언덕 아래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수행한 일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믿음은 전쟁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치열한 전장의 현장에서 싸우도록 만든다. 이 싸움이 없었다면 승리도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이 주시는 승리는 이스라엘의 싸움을 통해 구체화된다. 이것이 아말렉 전쟁이 주는 교훈이며 구약 이스라엘이 싸운 전쟁을 특징짓는다.

신약의 교회는 이 귀한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다. 신약의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 못지않게 안팎으로 강한 도전에 직면하여 있다. 옛날 아말렉을 비롯한 이방민족이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시 83 : 4) 고 하였듯이 지금도 그런 세력이 교회를 위협하고 있다. 세상이 과학과 학문의 이름으로 교회의 신앙을 도전하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이다. 아이러니 하게도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할 신학조차 학문의 이름을 내세워 교회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고대인의 종교적, 문학적 유산의 하나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논문과 책들이 학술잡지와 유명출판사의 출판목록을 가득 채우고 있다. 또한 교회가 지켜온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성경해석과 신학사상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이 런 흐름의 배후에는 사실상 구약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아말렉의 정신이 활동하고 있다.

“아말렉”, 그 얼마나 사악하고 소름 돋는 이름인가! 그러나 교회에는 여전히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갖지 못하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 믿음의 무기가 그것이다.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이 교회에 있는 한 교회는 안전하다. 구약 이스라엘의 믿음을 통해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의 신앙을 통해 그 놀랍고 신비한 힘을 나타낸다. 세상이 정치와 문화의 힘으로, 과학과 학문의 힘으로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해 친히 싸우신다. 교회는 이 거룩한 싸움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믿음의 무기로 싸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는다.